

# 사우디아라비아 인프라협력센터

##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5월 1~2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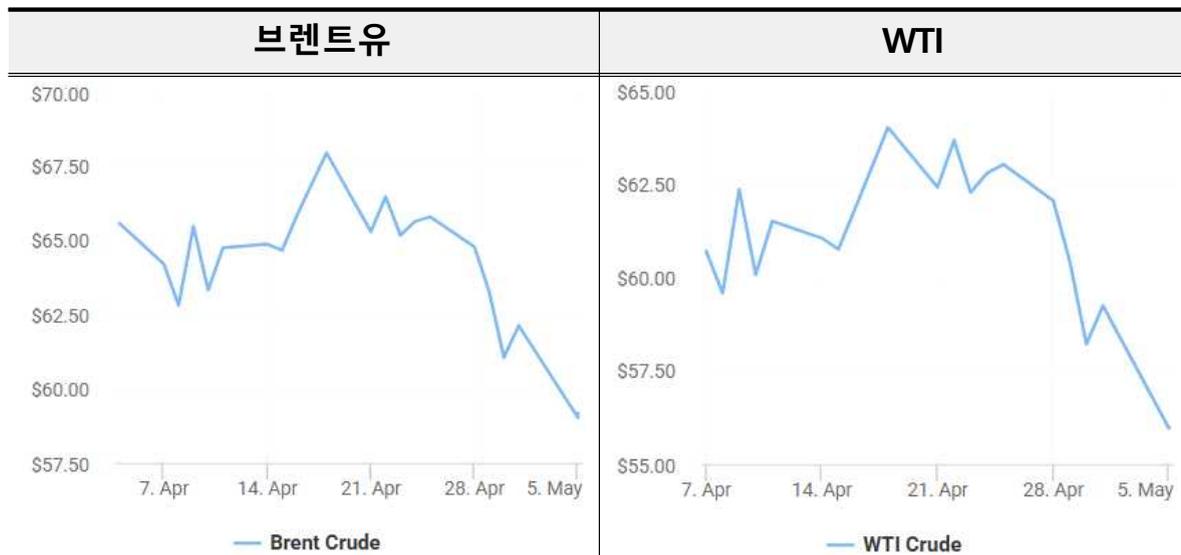
① 환율 및 기준금리 추이

구 분	내 용	비 고
환율	1 USD = 3.75 SAR (Peg system)	(2025.5.5.) Saudi Central Bank (SAMA)
기준금리	5.00 %	(2024.12.18.) Saudi Central Bank (SAMA)

-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 리얄화의 가치가 달러화 가치에 연동되는 달러화 페그제(peg system)를 유지하고 있어 미국의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 조정으로 리얄화의 통화가치 유지
- 사우디 중앙은행(Saudi Central Bank: SAMA)은 2024.12.18.일자로 기준 금리로 사용되는 Repo Rate를 0.25% 인하 발표함

② 국제유가 동향

구 분		유가	변동 (전일대비)	비 고
유 가	브렌트유	59.07	- 2.22	USD/bbl
	WTI	56.06	- 2.29	



< 자료: Oilprice.com (2025.5.5.) >

구분	4.21	4.22	4.23	4.24	4.25	4.28	4.29	4.30	5.1	5.2
Brent	66.26	67.44	66.12	66.55	66.87	65.86	64.25	61.06	62.13	61.29
WTI	63.08	64.31	62.27	62.79	63.02	62.05	60.42	58.21	59.24	58.35

### ③ 시장 동향

#### ○ 카타르-사우디, 무역 관계 강화<sup>(MEED 4.21)</sup>

- 카타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가 이니셔티브인 Qatar Exports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무역 관계를 강화함
- Qatar Exports는 다양한 프로젝트 개발사, 시공사, 조달업체 등의 전문가들과 협력을 통해 카타르 제품을 홍보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내 국제 무역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제는 신뢰할 수 있는 카타르 공급 네트워크와 직접 접근도 가능해졌다고 발표함
- 지난 해 사우디아라비아는 1,443억불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며, 역대 단일국가 기준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 시장을 기록했으며, 2023년 1,180억불(당시 기준 최고 기록) 대비 22.3% 증가해, 비전 2030 달성을 위한 강력한 투자 의지를 다시 한번 입증하였음
- Qatar Exports는 사우디 구매자들과 구조 및 산업 솔루션, 철강, 알루미늄, 복합 자재, 공기 분배 시스템, 방수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카타르 공급사들을 연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카타르 공급업체 포트폴리오에는 마감재, 타일, 보호 코팅재, 전기 및 유틸리티 시스템, 케이블 및 배전 솔루션 등도 포함되어 있음
- 한편, GlobalData는 교통, 발전, 주거, 관광 인프라 프로젝트와 8,500억불 이상의 기가 프로젝트 투자에 힘입어, 사우디 건설 산업이 2025~2028년 동안 연평균 5.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 IMF,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3%로 하향 조정<sup>(Saudi Gazette 4.23)</sup>

- IMF의 4월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사우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3.3%에서 3%로 하향 조정됨
- 또한 IMF는 WEO (World Economic Outlook)에서 2026년 성장률

전망치도 4.1%에서 3.7%로 0.4%포인트 하향 조정된 바 있는데, 사우디의 실질 GDP는 올해 3% 성장을 예상했지만, 2026년에는 3.7%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둔화세를 전망했으며, 이는 정책 변화와 불확실성 증가에 기인한다고 분석함. 세계 인플레이션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국가는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기도 하였음. 또한, 무역 긴장 고조와 정책 불확실성 증가가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글로벌 금융 조건의 급격한 긴축 및 자본 유출은 특히 신흥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함
- 중동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당초 3.6%에서 3%로 하향 조정되면서, 1월 전망치와 비교했을 때 석유 생산의 점진적인 재개, 국가간 갈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영향, 예상보다 더딘 구조 개혁 진전을 반영하여 하향 조정된 것이라고 밝힘
-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이자 G20 경제국인 사우디는 원유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2025년 급격한 성장 반등이 기대되었으나, 시장 변동성, 유가 약세, 고조되는 글로벌 리스크 등이 경제 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함

○ 사우디, 공간정보 분야 중동 1위, 세계 9위 기록 (Saudi Gazette 4.22)

-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Geospatial World Forum 2025에 사우디 대표로 참가한 GEOSA (General Authority for Survey and Geospatial Information)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공간정보 인프라 준비도 부문에서 2022년 세계 32위에서 2025년 9위로 급상승했으며, 중동 1위, G20 국가 중 6위를 차지하였다고 발표함
- GEOSA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순위는 UN 통계국이 후원하고 Geospatial World가 개발한 GKI (Geospatial Knowledge Infrastructure) 준비도 지수를 기준으로 평가됐으며, 동 지수는 각국의 공간정보 지식 도입 정도, 이를 통한 경제 성장, 지속 가능한 개발,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 등을 비교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알려짐
-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가 공간정보 데이터 시스템의 거버넌스 및

국제 모범 사례를 반영한 정책, 표준 및 규격 수립 경험 인정으로 정책 부문에서 세계 6위를 차지했고, 국가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등 공공, 민간, 학계, 비영리, 개인 등 다양한 분야를 연결하는 공간정보 통합 노력을 인정받아 인프라 부문 세계 7위를 차지했으며, 다양한 분야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를 인정받아 산업 부문에서 8위를 차지함

- 이번 성과로 인해 리야드는 UN 글로벌 공간정보 생태계 혁신센터 (Global Geospatial Ecosystem Center of Excellence)의 본부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혁신적인 공간정보 관리 측면에서 국제적 위상을 더욱 강화시킨 결과로 평가됨
- GEOSA는 향후에도 측량, 공간정보 및 영상 분야 전반을 조직 및 관리하고, 국가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및 통합 활용, 기본 및 지침 표준 마련 등을 통해 관련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극대화할 계획임

○ OPEC+, 6월 원유 증산 검토 예정<sup>(AGBI 4.24)</sup>

- OPEC+ 회원국들 간의 생산 할당량 준수에 대한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원유 증산이 5월에 이어 6월에도 증산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 4월 들어 유가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OPEC+는 5월에 41.1만b/d을 증산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당초 계획보다 3배 많은 규모임
-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회원국들은 5월과 유사한 규모의 증산을 원하고 있으며, 총 8개 OPEC+ 회원국이 5.5일 회의를 열어 6월 생산 계획을 결정할 예정임

**4 건설시장 동향**

○ 리야드, 축구 클럽 민영화 입찰 결과 2분기 내 발표 예정<sup>(MEED 4.21)</sup>

- Ministry of Sports가 NCP를 통해 추진중인 6개 스포츠 클럽 개발 및 운영 사업자 선정 발표가 금년 2분기 내 있을 예정임
- 현지 언론에 따르면, Ministry of Sports는 해외업체를 포함해 22개 이상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짐
- 민영화 대상 클럽은 Alzulfi Sports Club (알줄피), Alnahdah Sports

Club (담맘), Alokhdood Sports Club (나즈란), Alansar Sport (메디나), Alorobah Sports Club (사카카 시티), Alkholood Sports Club (알라스 시티)로 알려짐

- 지난해 8월, MEED는 사우디 내 6개 스포츠 클럽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투자자 관심을 유치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며, 이는 지난 7월 사우디 정부가 14개 스포츠 클럽 민영화를 승인했다는 발표에 따른 것임
- 한편, 최종 입찰자격심사 서류는 9.19일 접수 마감하였음
- NCP는 동 프로젝트가 사우디 비전 2030의 목표에 따라 추진중인 스포츠 클럽 투자 및 민영화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민간 부문이 스포츠 부문의 건설 및 개발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대표팀, 클럽, 팬과 모든 스포츠 종사자들에게 혜택 제공을 목표로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사우디는 스포츠 인프라 개발에 대한 대규모 계획들을 추진중이며, 2034 FIFA 월드컵 개최를 위해 수천억불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 SEC, 리야드 주거시설 개발 프로젝트 입찰 추진<sup>(MEED 4.21)</sup>

- Saudi Electricity Company (SEC)는 추진하는 리야드 주거시설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 4.27일까지 입찰을 접수할 예정임
- MEED는 금년 1분기 동 프로젝트의 입찰이 공고됐다고 보도함
- 동 프로젝트의 사업 범위는 PP12와 PP13 부지 내에 각각 36개의 유닛을 갖춘 2층 철강 모듈러 주거건물을 비롯하여 경비실, 펌프실, 모스크 등을 모듈러 건물로 건설하는 건임
- PP12 확장 프로젝트는 최근 중국의 Sepco 3와 두산에너지빌리티가 EPC 계약을 수주하였으며, PP13 건설공사는 2022년 완공된 프로젝트임

#### ○ STC, 젯다 데이터센터 건설 입찰 마감<sup>(MEED 4.22)</sup>

- STC는 젯다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한 입찰을 3.23일 공고하여 4.16일 마감함
- JDC-205로 알려진 동 시설은 총 15MW 용량으로 14,390m<sup>2</sup> 부지에 건설될 예정이며, 15MW 추가 확장 가능성도 반영됨
- 컨설턴트는 로컬의 Edarat Group Technology Consultants가 참여중

- 사우디아라비아의 데이터센터 구축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MEED Projects에 따르면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약 40억불 규모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건설 중이고 120억불 규모의 프로젝트가 실행 전 단계로 추정함. 이러한 파이프라인은 사우디의 디지털 허브와 AI 전략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됨
- GlobalData에 따르면 전세계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는 지난해 706억 불에 달했으며, 올해는 5% 성장한 743억 불에 이를 전망임
-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은 AI 및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31년까지 확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GCC 국가들은 하이퍼스케일러(hyperscaler)로 불리는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
- 2021년 STC는 리야드, 젯다, 담맘 등 6개 도시에 데이터센터 건설을 위해 약 4억불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동 사업은 총 18만㎡에 달하는 부지에 걸쳐 총 125MW의 용량을 제공할 전망임

#### ○ SWPC, Arana & Hadda ISTP 프로젝트 입찰 연장<sup>(MEED 4.23)</sup>

- SWPC (Saudi Water Partnership Company)는 Arana & Hadda 2건의 ISTP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 입찰을 연장할 예정임
- Arana ISTP는 초기 처리용량이 25만㎥/day이며, 최대 50만㎥/day 까지 확장 가능하고, Hadda ISTP는 초기 처리용량이 10만㎥/day 이고, 최대 25만㎥/day까지 확장 가능하며 2건 모두 메카에 위치할 예정
- 양 프로젝트 모두 올해 초 SWPC가 입찰 공고할 당시 5.5일까지 입찰 마감을 예상했으나, 최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최대 2개월 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으로 알려짐
- 2028년 가동 예정인 두 프로젝트는 모두 25년간의 BOOT 모델로 개발 예정이며, 범위에는 재처리 하수(TSE, Treated Sewage Effluent) 재사용 시스템도 포함되며, 송수관, 펌프장 및 TSE 저장 탱크도 포함함

#### ○ SAR, 담맘 제2산업도시 철도 노선 건설 입찰 공고<sup>(MEED 4.23)</sup>

- Saudi Arabian Railways (SAR)는 최근 공고한 담맘 제2산업도시 내 철도 건설 프로젝트의 입찰을 5.29일 마감할 예정임

- 동 프로젝트는 신규 화물 야드(yard)와 화물 철도 노선 건설을 포함하며, 담맘 제2산업도시와 기존 556km 연장의 담맘-리야드 철도를 연결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 동 프로젝트의 예상사업비는 약 1.92억불이며, 향후 3년간 진행될 예정임
- 2023년 MEED는 SAR이 화물 처리용량 증대를 위해 2건의 프로젝트를 계획중이며, 북부 화물철도 노선의 복선화와 신규 화물 야드 3개소 건설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1억불에 달한다고 보도함
- 과거 남북 철도(North-South Railway)로 불렸던 북부 철도(North Train)는 연장 1,550km로 북부의 인산염 및 보크사이트 광산에서 출발해 알-바이사 분기점까지 이어지며, 이후 리야드 방면과 걸프해안의 라스 알카이르의 비료 및 알루미늄 정제시설 방면으로 나뉨
- 한편, 동 사업 추진으로 화물 수송능력 향상과 생산 확대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프로젝트는 4년간 추진 예상됨
- SAR은 그 외에도 철도 자재 및 장비의 현지화 확대를 위해 시멘트 침목 제조 시설 건설도 검토중이며, 오랫동안 계획해 온 랜드브리지 프로젝트도 이달 초 주요 설계 컨설팅 서비스 계약 입찰 진행을 발표하는 등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랜드브리지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70억불 규모로 총 1,500km가 넘는 구간 중 리야드와 젯다를 잇는 900km 신규 철도 건설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완공되면 홍해에 위치한 킹 압둘라 항에서 수도 리야드까지 화물을 직접 운송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 사우디 원전, 고위급 협상 돌입<sup>(MEED 4.23)</sup>

- MEED에 따르면, 주재국은 사우디 최초의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 입찰에 초청된 원자력 기술 보유국들과 양자 협상에 착수했다고 보도함
- 또한, 프로젝트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 간 일대일 회담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전함
- 동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기업들이 입찰 초청을 받았으며, 2010년대 중반부터 계획단계에 있다가 2022년 이후 입찰 절차가 진행됨
  - 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 (중국)

- 한국전력공사(한국)
  - Rosatom (러시아)
  - EDF Group (프랑스)
  - 동 프로젝트 발주처인 사우디의 King Abdullah City for Atomic and Renewable Energy (KA-Care)는 2022년 이후 입찰 마감일을 수차례 연기해왔으며, 입찰 마감일은 정부간 양자 협상 진행상황과 병행해 조정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 이스라엘, 가자지구 및 다른 주변국들간의 지속적인 분쟁이 동 프로젝트의 입찰 일정을 지연시킨 주요 원인으로 보이며, 일부 소식통은 동 프로젝트가 향후 몇 주 안에 예정된 美 트럼프 대통령의 리야드 방문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였음
  - 현재 주재국은 자국 산업 전략의 일환으로 우라늄 농축 계획과 함께 원전 프로젝트를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한편, 우라늄 농축 계획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두와이헨(Duwaiheen) 원전은 전통적인 Design-Build 모델로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며, 용량은 2.8GW 규모이고, 위치는 UAE와 카타르 국경 인근 해안의 Khor Duwaiheen 부지로 예정되어 있음
  - 주재국은 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22.3월 Duwaiheen Nuclear Energy Company를 설립하고 2023년 PMC 패키지 입찰에서는 영국의 Atkins, 호주의 Worley, 프랑스의 Assystems 등이 참여했으며, 이 중 2개사는 과거에 사우디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 관련해 협력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NMDC, Mukaab 신규 패키지 3건 PQ 마감일 연기<sup>(MEED 4.25, 5.1)</sup>
- NMDC (New Murabba Development Company)는 리야드의 New Murabba 다운타운 개발 사업에서 무카브(Mukaab) 건설과 관련된 3개 패키지에 대한 PQ를 4.30일 접수 예정에서 5.7일까지로 연기함
  - MEED는 해당 패키지가 센트럴 코어 타워(Central Core Tower), 아웃리거(Outriggers), 버티칼 리브(Vertical Ribs)이며, 총 공사비는 약 26억불 규모로 예상함
  - NMDC는 지난해 11월에 접수한 와디 포디엄과 무카브 하부의 래프트

콘크리트 공사 입찰 건을 평가 중임

- 무카브는 나지드 양식에서 영감을 받은 초대형 큐브 형태의 랜드 마크이며,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400미터에 달하고 내부에는 나선형 베이스의 타워와 약 200만㎡의 공간이 호스피탈리티 시설을 비롯해 상업 시설, 문화 및 관광 명소, 주거 및 호텔 시설, 여가 활동 공간 등으로 조성될 예정임
- MEED는 지난해 10월 New Murabba가 무카브 프로젝트에서 상당한 공사 진척을 이루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무카브와 주변 포디엄 부지의 굴착 공사가 현재 86% 완료된 상태이며 총 1,000만㎡ 이상의 토사를 이동하였음
- 현재 동 프로젝트는 베이징의 China Harbour Engineering Company가 굴착 공사, UAE의 HSSG Foundation Contracting이 기초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SBG, 리야드 스타디움 건설을 위한 5.33억 불 금융 조달<sup>(MEED 4.25)</sup>

- SBG (Saudi Binladin Group)은 리야드 킹 파드 스포츠 시티 건설 프로젝트를 위하여 사우디 Awwal Bank로부터 약 5.33억 불 규모의 여신을 확보함
- 동 프로젝트는 경기장 좌석수를 기존 68,752석에서 92,000석으로 확장하는 공사임
- SBG는 Ministry of Sports로부터 동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공사에 착수함
- 2023.7월, Ministry of Sports는 Capital Projects Programme의 일환으로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주요 건설 계약을 위한 PQ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으며, 차기 주요 사업으로는 2027년 AFC 아시안컵 개최를 위하여 경기장 인근에 30개의 신규 훈련장과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것임

○ 퀴디아 와디 브릿지 RFP 기한 연장<sup>(MEED 4.24)</sup>

- Qiddiya Investment Company (QIC)는 지난해 9월 공고한 퀴디아 지역의 와디 위에 건설될 교량 Design-Build 프로젝트에 대한 RFP 마감을 4.7일에서 6.19일까지로 연장함

- 동 프로젝트는 연장 260m의 왕복 2차선 교량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을 포함하며, 쿼디야의 Uptown South (District 18)의 외곽순환도로 일부로 게임 및 e스포츠 구역 동쪽에 위치할 예정
- QIC는 현재 쿼디야 개발 프로젝트의 건설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MEED는 지난해 12월 QIC가 쿼디야 시티에 위치한 프린스 모하메드 빈 살만 경기장을 착공했다고 단독 보도 한 바 있음
- 해당 프로젝트는 지난해 10월 FCC Construction과 Nesma & Partners JV가 수주했으며, 해발 200m의 절벽 위에 다목적 경기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위치는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구역에 위치할 예정임

#### ○ 사우디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sup>(AGBI 4.29)</sup>

- 2GW 규모 Al Shuaibah 2 태양광 프로젝트, 1.5GW 규모 Dawadmi 풍력 발전 프로젝트 등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급증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는 2030년까지 130GW의 재생에너지 용량 확보 목표 달성을 위해 장비와 전문 인력 확보가 필수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가들은 주재국의 이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음
- Alfanar Group 전력 부문 부사장은 최근 두바이에서 개최한 컨퍼런스에서 전력망 성장의 핵심은 장비 공급인데, 변압기, 해저 케이블, HVDC, BESS 등 주요 장비들은 수년의 리드타임이 필요하다며 공급망 제약에 대해 시사하였음
- 세계 2위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풍력 및 태양광 개발을 고려중으로, 비전 2030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에너지 믹스의 5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Dii MENA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서는 2024년 말 기준 주재국 내 설치된 재생에너지 용량은 4.5GW에 불과하며, 9GW 이상이 건설중이라고 전했으며, 추가로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용량이 각각 2GW, 3GW 개발 중이고, 14GW 이상이 신규로 발표됨
- 이러한 성장 모멘텀을 위해서는 산업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PIF는 중국의 Envision, Jinko Solar, TCL Zhonghuan과 JV 설립을 통해 풍력 터빈, 태양광 모듈 및 웨이퍼를 현지 생산

하고, 풍력 발전용 철탑 생산을 위한 계약 체결 등을 통해, 2.9억불 이상의 GDP 기여 및 수백 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음

- 또한, 주재국은 2030년까지 나셀(Nacelle) 및 블레이드(Blade) 조립, 타워 제작, 송전망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가치사슬의 75%를 현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현재와 같은 수입에 의존하는 공급망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신흥시장에 지연과 가격 변동성이라는 리스크를 안긴다고 보고서는 경고하였음
- 현지화에는 숙련된 인력 확보 및 양성도 포함되며, 세계풍력에너지 협의회(GWEC)는 2028년까지 사우디에 약 2,000명의 풍력 기술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주재국은 킹압둘라과학기술대(KAUST) 및 King Abdullah City for Atomic and Renewable Energy (K.A.CARE) 와 같은 기관들에서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도 착수하였음

○ 11억불 규모 디리야 유틸리티 패키지 계약 체결<sup>(MEED 4.29)</sup>

- Diriyah Company는 디리야 게이트 프로젝트 2단계(DG2)에 위치한 King Salman University (KSU) 프로젝트의 유틸리티 이전 패키지를 중국의 China Railway Construction Corporation과 China Railway Construction Group Central Plain Construction Company의 JV가 11억 불에 수주함
- 계약 범위는 KSU 유틸리티 및 행정사무실의 설계, 시공, 이전과 더불어 지역 냉방 시설, 저수시설, 하수처리장, 천연가스 시설, 디젤 이송 펌프장, 유틸리티 터널, 관개용 저수조, 오피스 빌딩, 창고 및 유지보수 작업장 건설 등을 포함함
- 이외에도 DG2에는 주거 단지, 호텔, 킹살만 대학교, 오페라 하우스, 사우디 현대 미술관, 6개의 아카데미, 아레나, 모스크가 들어설 예정

○ 옥사곤, 최초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용량 공개<sup>(MEED 4.29)</sup>

- 네옴 옥사곤에서 지역 내 최초로 추진하는 Net-Zero 및 AI 기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의 초기 용량이 300MW로 확정됨
- 동 프로젝트 1단계는 2028년부터 운영 목표하며, 로컬의 DataVolt가 소유 및 운영할 예정

- 옥사곤은 향후 해당 데이터센터의 총용량은 최대 1.5GW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내 및 글로벌 수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또한, 사우디가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등 1GW 이상 운영 용량을 보유한 국가들 수준으로 용량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덧붙임
- 한편, 동 프로젝트에는 수십억 불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 옥사곤에 따르면, 초기 300MW 규모 시설은 모듈형 설계를 통해 IT 인프라, 랙 전력 밀도, 냉각 시스템 등 수요 증가에 맞춰 확장 가능하도록 했음
- DataVolt 데이터센터는 35만㎡ 부지에 건설되며, 태양광 및 풍력 등 네옴 지역 내 재생에너지를 전력원으로 운영될 예정
- 현재 계획에는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대규모 배터리 저장 장치와 이중화를 위한 가스터빈을 배치하여 필요시 그린수소 연료를 사용하여 최대 48시간까지 자율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 옥사곤은 이러한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AI 기반 워크로드의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Tier 3 수준의 이중화 및 가용성을 유지하고, 운영 시 Net-zero를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음
- 한편, 사우디 Vision Invest의 전액 출자 자회사인 DataVolt는 2023년에 설립되었으며, 구체적인 위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사우디의 데이터센터 개발에 50억 불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는 현재 전 세계 전력 수요의 1~1.3%를 소비하고 있는데,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향후 10년 내 전력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RSG, 누만 아일랜드 개발공사 입찰 마감<sup>(MEED 4.30)</sup>

- Red Sea Global (RSG)는 홍해 연안 아말라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누만(Numan) 아일랜드 건설 공사에 대한 입찰을 4.15일 접수 마감함
- 동 프로젝트는 두바항 남쪽에 위치하며, 공사 범위는 해양 및 벌크 토공사가 포함됨. 입찰한 참여한 업체는 다음과 같음.
  - Archirodon (네덜란드)

- China Harbour (중국)
  - Rawabi Specialised Contracting (로컬)
  - Besix (벨기에)
  - AlSaad General Contracting (로컬)
  - Ammico Contracting / PC Marine (로컬)
  - 이번 입찰은 누만 아일랜드에서 발주된 두 번째 주요 공사 패키지이며, MEED는 2023.12월, RSG가 건설 캠프(Construction village) 공사를 발주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해당 프로젝트의 공사 범위에는 250동 이상의 5,000명 수용 가능한 직원 숙소, 상수도망 시스템, 변전소, 하수처리장 및 배수시설, 기타 토목공사 및 기반 시설 조성 등이 포함됨
- **킹살만 국제공항 제3활주로 개발 Design-Build 입찰 연기**<sup>(MEED 5.1)</sup>
- KSIADC는 2월 마지막 주에 공고한 킹살만 국제공항의 제3활주로 Design-Build 프로젝트의 입찰마감일을 4.21일에서 5.12일로 연기함
  - 제3활주로는 현재 킹 칼리드 국제공항의 기존 2개 활주로에 추가되며, 향후 킹살만 국제공항의 일부로 통합될 예정임
  - 금년 2월, MEED는 동 프로젝트의 PQ를 1.18일에 접수 마감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현재 킹살만 국제공항은 영국의 Foster + Partners가 공항 마스터플랜(터미널 및 6개 활주로, 부동산 개발 포함), 미국의 Jacobs가 신규 활주로 설계 및 마스터플랜, 영국의 Mace가 딜리버리 파트너, 로컬의 Nera가 공역 설계 컨설턴트로 참여하고 있음
- **네옴, 佛Engie와 해수담수화 고염수 처리를 위한 MoU 체결**<sup>(MEED 5.2)</sup>
- 네옴과 프랑스의 Engie가 해수담수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염수 처리 방안을 시험하고 시범 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MoU를 체결함
  - 고염수(Brine)는 해수를 식수로 전환하는 담수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고염분 물인데, 일반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제된 방식으로 바다에 방류됨
  - Engie는 성명에서 이번 파트너십은 고급 멤브레인 솔루션 및 결정화 시스템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해수 고염수 부산물로부터 유용

자원 회수의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임

- 2022.12월 네옴의 자회사 Enowa, 일본의 Itochu, 프랑스의 Veolia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옥사곤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첨단 RO 담수화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MoU 체결 후 6개월만에 공동개발 협약(JDA)을 체결한 바 있으며, JDA의 범위는 프로젝트 1단계를 포함하여 2030년까지 50만m<sup>3</sup>/day의 담수화를 생산하는 해수담수화 플랜트가 건설될 예정이었음
- 한편, 이번 개발은 위 JDA를 취소한지 1년만에 체결된 것임

○ 두산에너지빌리티, Marafiq와 플랜트 연료 전환 계약 체결<sup>(MEED 5.2)</sup>

- 주베일 및 얀부의 국영 유틸리티 기업인 Marafiq는 두산에너지빌리티와 얀부에 위치한 석유 화력 발전소를 가스 화력 발전소로 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이번 얀부 2 발전소 연료전환 계약의 규모는 약 1.29억 불이라고 전함
- 동 프로젝트는 동일한 발전 용량을 유지하면서 탄소 배출량을 25% 감축시킬 것으로 기대됨
- 4.27일 주베일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Marafiq의 운영 및 유지보수 담당 부사장과 두산에너지빌리티 발전서비스 사업총괄 CEO가 참석함
-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연소기(Combustor) 및 분산제어시스템(DCS)을 포함한 주요 설비를 공급하고 2028년까지 발전소 시운전을 수행할 예정임
- 2013년 제다에서 북쪽으로 약 350km 떨어진 얀부 산업단지에 건설된 얀부 2 발전소의 발전 용량은 1,375MW이며, 당시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보일러와 스팀터빈을 포함한 주요 기자재를 공급했음
-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사우디아라비아와 2027년까지 1.4GW 규모의 연료 전환 프로젝트 신규 수주를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음
- 한편,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사우디아라비아 외에도 칠레와 베트남 등 타국가와 여러 연료 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바 있음